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8월 미 소매 판매 예상 외 상승...온라인 소매 호조로
- Bloomberg: 8월 미 산업 생산도 회복...허리케인 영향 하락 후에
- CNBC: '연준, 연착륙 기대하며 0.25% 금리 인하', CNBC 연준 관련 설문 결과

### [미국 금융]

- WSJ: 증시 상승세...투자자들 여전히 0.5% 금리 인하에 베팅
- Bloomberg: '미 금리 인하로 수십억불 다시 이머징마켓으로 되돌아간다'
- Bloomberg: 미 부동산 보험료 2017년 이래 첫 하락

### [주택]

- Reuters: 금리 인하 기대로 미 주택 건설 신뢰 지수 상승

### [오일]

- CNBC: 유가 배럴당 70불 이상 거래...멕시코만 생산량 회복세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아마존 주 5일 사무실 근무 명령, 엄격하진 않아
- CNNBusiness: '직장 여성 리더십 진출...평등에는 수십 년 걸릴 듯'
- CNNBusiness: Sam's Club, 직원의 코스트코 이직 막기 위해 임금 인상
- WSJ: 보잉, 파업으로 재정 상태 악화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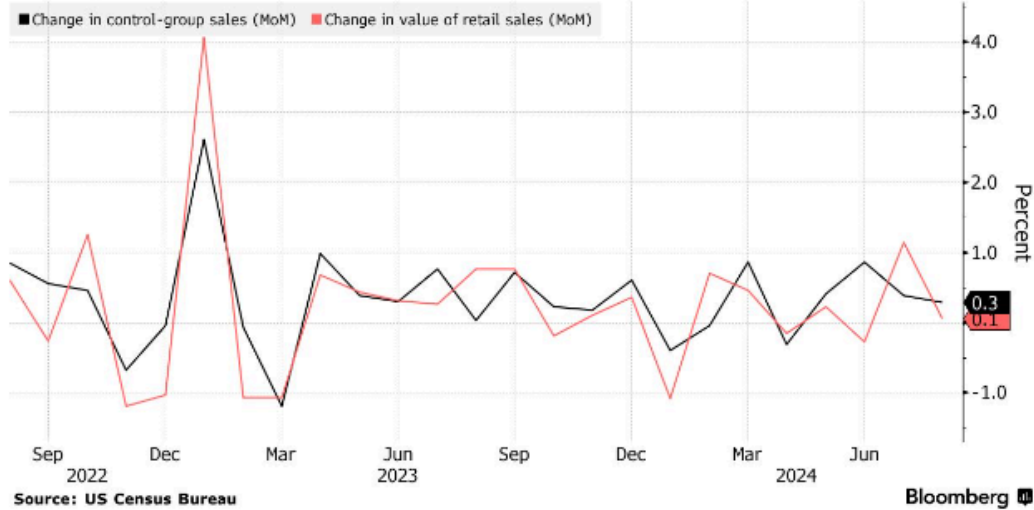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Retail Sales Post Surprise Gain, Helped by Online Stores** 8월 미 소매 판매 예상 외 상승...온라인 소매 호조로

- 미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지출은 지속되고 있다. 8월 미 소매 판매가 예상 외로 상승했는데 온라인 소매 판매 덕분이었다.

- 인플레이션으로 조정되지 않는 소매 구매 규모는 7월에 1.1% 상향 조정된 후, 8월에 0.1% 상승했다고 오늘 화요일 연방 상무부는 밝혔다.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판매 규모는 4개월 연속 상승했다.
- 13개 카테고리 중 5개가 판매 상승을 보인 반면에 전자 제품과 의류, 가구 판매는 감소했다. 전자상거래는 1.4% 상승이라는 강한 증가세를 보였다. 휘발유 판매는 가격이 낮아 감소했다.

**US Retail Sales Posted Surprise Gain in August**  
**Online purchases boosted sales while other categories were mix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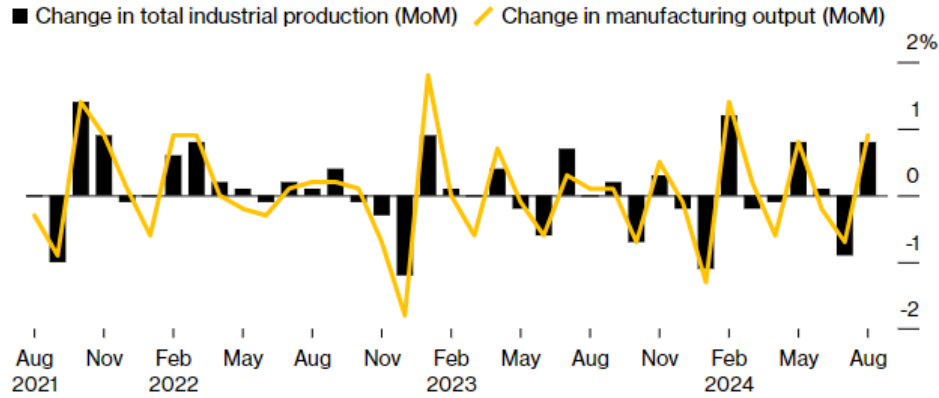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Industrial Production Rebounds After Hurricane-Related Drop**  
**8월 미 산업 생산도 회복...허리케인 영향 하락 후에**

- 8월 미 산업 생산이 전달 허리케인 ‘베릴’ 여파에 따른 하락 이후 반등했다. 제조업과 광업 분야가 상승했다.
- 오늘 화요일 연준의 발표에 따르면 8월에 제조와 채굴, 유틸리티 분야의 생산이 0.8% 상승했다. 전월에서 0.9% 하향 조정된 수치에서 반등한 것이다.
- 제조 부분이 0.9% 상승했고 광업과 에너지 추출 분야도 성장했다. 유틸리티 분야의 생산은 8월에는 변동이 없었다. 7월에 허리케인 여파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텍사스 지역에서는 생산 활동이 일부 중단됐다.

### US Industrial Production Snaps Back

August increase exceeded all estimates after prior month's Beryl-related dr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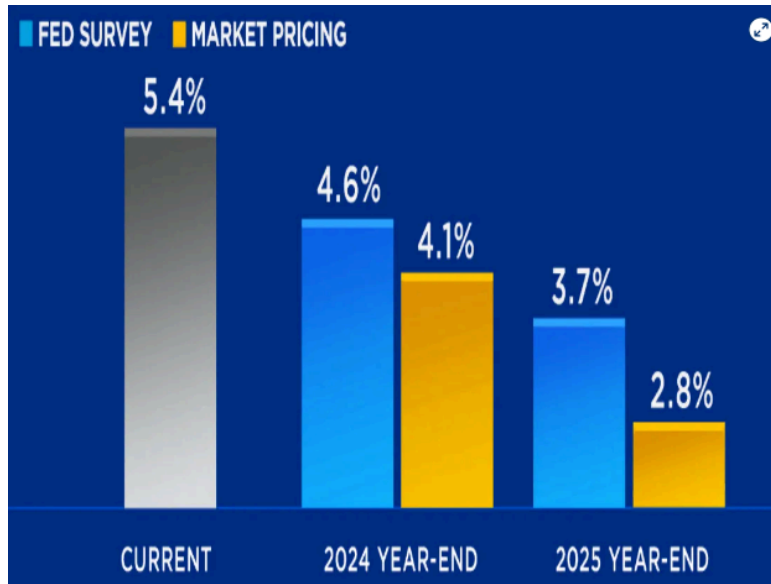
Source: Federal Reserve

Bloomberg 기사

### CNBC: Fed to cut rates by a quarter point with a soft landing expected, according to CNBC Fed Survey

‘연준, 연착륙 기대하며 0.25% 금리 인하’, CNBC 연준 관련 설문 결과

- 연준의 내일 금리 인하 폭이 불확실한 가운데 CNBC 연준 조사 관련 응답자들은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 폭보다 더 점진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코노미스트, 펀드 매니저, 전략가 등을 포함한 전체 27명 중에 84%는 0.25% 금리 하락, 16%는 0.5% 하락을 예상했다. 연준 선물 시장에 반영된 0.5% 금리 인하에 대한 65%의 가능성보다 낮은 반응이다.
- 응답자의 올해 말과 내년 말 펀드 수익률 예상은 4.6%와 3.7%로, 선물 시장의 예상치 4.1%와 2.8%와 비교하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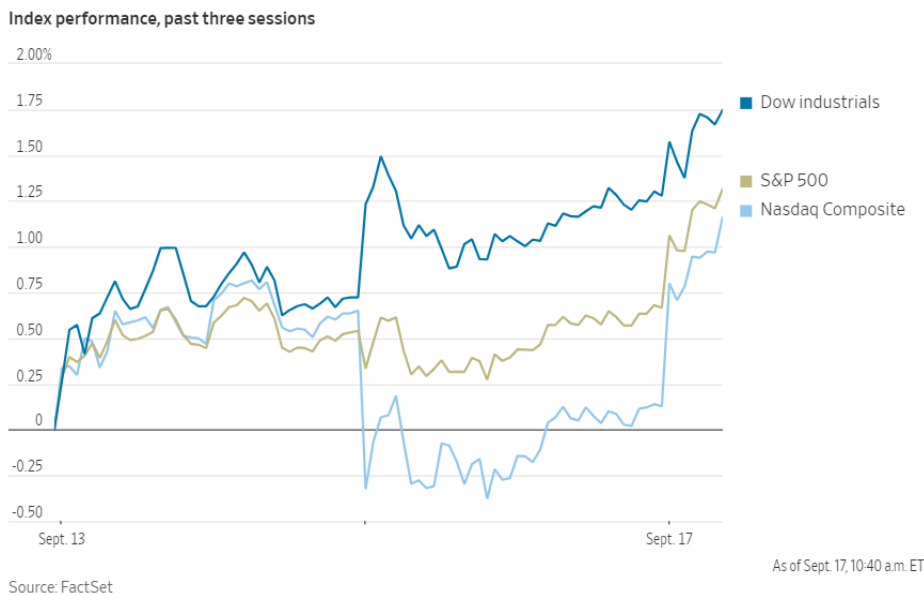


CNBC기사

[미국 금융]

**WSJ: Futures Rise; Traders Still Betting on a Big Fed Cut**  
**증시 상승세...투자자들 여전히 0.5% 금리 인하에 베팅**

- 연준의 정례 회의 첫날인 오늘 화요일에 주식 지수는 상승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0.5% 인하라는 벅커 가능성을 높게 잡았다. CME Group's FedWatch에 따르면 0.5% 금리 인하의 확률은 3분의 2다. 연준은 인플레이가 둔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강한 일자리 시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같은 고려 사항이 세밀하게 조정되고 있다.
- 한편 S&P 500은 오늘 오전 11시 55분 현재 0.41% 상승한 5,651.21, 나스닥은 0.72% 상승한 17,719.43에서 거래되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0.18% 줄어든 3.64%를 기록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Fed Cuts Seen Pulling Billions Back Into Emerging Market Debt**  
**‘미 금리 인하로 수십억불 다시 이머징마켓으로 되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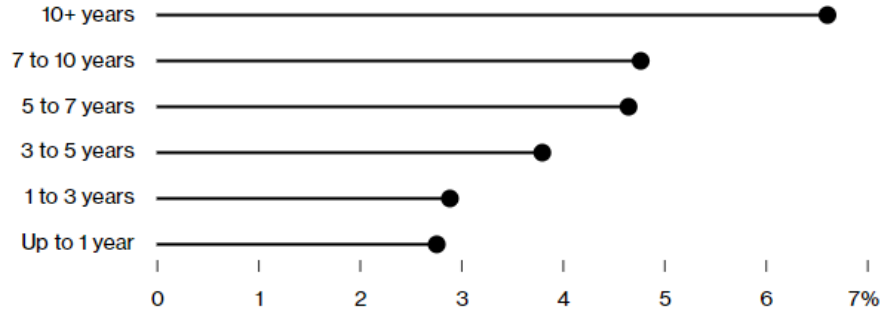
- JP 모건 자산 관리, Van Eck Associates, Vontobel 자산관리는 미 차용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신흥 시장에서 빠져나왔던 수십억달러가 다시 되돌아가게 될 것에 베팅하고 있다.
- 이들 기관에 따르면 이머징마켓 중앙은행들이 연준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신흥국 통화로 표시된 부채는 가장 크게 오르리라는 것이다. 만기

가 긴 채권이 랠리를 주도할 것이고 말하고 있다.

- JP모건 자산의 Pierre-Yves Bareaux는 “채권 만기 기간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다. 듀레이션 기간에 대해 말할 때 아시아가 중요 관심사이다.”라고 말했다.

### Long-Duration Bonds Outperform as Era of Interest-Rate Cuts Arrives

● Quarter-to-date total return



Source: Bloomberg

Note: Return data for bonds in the EM Local Currency Government Universal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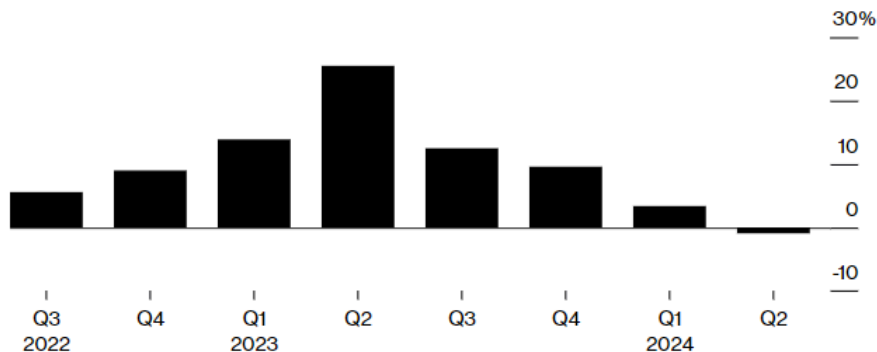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 Bloomberg: US Property Insurance Rates Fall for First Time Since 2017 미 부동산 보험료 2017년 이래 첫 하락

- 미 보험사들이 재난과 관련된 손실 하락에 따라 수익 단계로 회복되면서 미 부동산 보험료율이 거의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중이다.
- 올해 2분기 평균 부동산 보험료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0.94% 하락했다. 작년에도 증가 폭이 자주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 한편 지난 수년 동안에는 보험사들이 잦은 손실을 부담하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올렸다. 2020년 3분기 보험료 인상률은 30%를 넘어섰다. 여기에 금리 상승으로 부담은 더 가중되다 보니 투자자들은 보험 시장을 떠나 다른 투자 분야로 옮겼다.

### US Insurance Property Rates Fall From a Year Earlier

First decrease in almost seven years follows several quarters of softer increases



Source: Aon's Q3 2024 Property Market Dynamics Report

Bloomberg 기사

#### [주택]

### Reuters: US home builder confidence edges up as rate cut looms 금리 인하 기대로 미 주택 건설 신뢰 지수 상승

- 9월 미 주택 건설 지수가 모기지율 인하로 상승했다.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벗어났지만 고비용으로 인한 건축 비용 부담 때문에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주택 시장 지수(The NAHB/Wells Fargo Housing Market Index)는 8월 39에서 9월 들어 41로 상승했다고 전국주택건설 협회는 오늘 화요일 밝혔다. 로이타는 40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 이 같은 수치 상승은 지난 5월 이래 향후 주택 판매의 첫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 업계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한편 30년 평균 모기지율은 Freddie Mac에 따르면 6.20%로 하락했다.

Reuters 기사

#### [오일]

### CNBC: U.S. crude oil trades above \$70 per barrel as Gulf of Mexico production recovers 유가 배럴당 70불 이상 거래...멕시코만 생산량 회복세

- 화요일 미국 원유는 배럴당 70달러 이상에 거래됐다. 허리케인 프란신이 지나가고 멕시코만 원유 생산량은 회복세에 들어섰다. 안전 및 환경 집행

국(Safety and Environmental Enforcement)에 따르면 아직 하루 20만 배럴 이상의 원유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손상되지 않은 시설은 점검 후 다시 운영될 예정이다.

-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배럴당 70.4달러로 32센트(0.5%) 상승했다. 올해 원유는 약 2% 하락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2.93달러로 18센트(약 0.3%) 상승했다. 올해 브렌트유는 5% 이상 하락했다. RBOB 가솔린은 갤런당 1.974달러로 0.3% 상승했다. 천연가스는 2.396달러(천 입방 파드당)로 1% 상승했다.
- 이번 분기 미국산 원유는 13% 이상 하락했다. 브렌트유는 중국의 수요 둔화와 OPEC+의 12월 생산 증가 계획으로 16% 가까이 하락했다.

CNBC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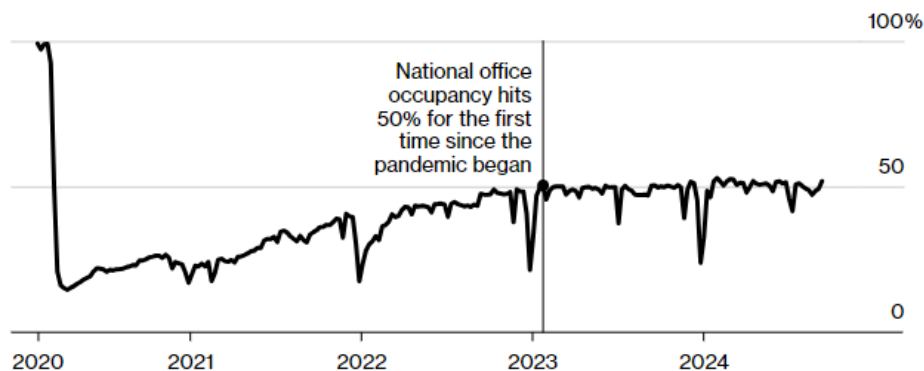
#### Bloomberg: Amazon’s Five-Day Office Mandate Isn’t as Strict as it Sounds

#### 아마존 주 5일 사무실 근무 명령, 엄격하진 않아

- 아마존 CEO Andy Jassy는 1월부터 주 5일 사무실을 직원들에게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완전 원격 근무를 승인 받은 관리자에게는 예외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 문제 등 특수한 상황에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아마존은 원격 근무 대신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힘썼다. 하지만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작년 초 이후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보안 회사 Kastly System에 따르면 사무실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절반 정도만 차 있다.
-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조교수 Prithwiraj Choudhury는 사람들이 원격 근무에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연구자들에 따르면 원격 근무를 보장한다는 회사 채용 광고에 더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 Hybrid Work Holds Steady

American offices are half as full as they were before the pandemic



Source: Kastle Systems

Note: Data reflects office occupancy across 10 major US cities, and is not a national statistical sample.

## Bloomberg 기사

**CNNBusiness: Women at work are making gains in leadership roles, but catching up to men could take decades, new report estimates**  
**‘직장 여성 리더십 진출...평등에는 수십 년 걸릴 듯’**

- 여성 권리 단체 LeanIn.org와 컨설팅 회사 Mckinsey&Company의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여성의 지위가 지난 10년 동안 발전했다. 하지만 남성과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엔 부족하다. 여기서 평등은 미국 여성 인구 비율과 고위직 중 여성 비율이 비슷해지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직 중 여성 비율은 2015년 17%에서 현재 29%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 최고 인사 책임자처럼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지원 분야였다.
-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보다 직장 내 여성 지위가 많이 발전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 60%가 성장할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답했고, 73%가 존중 받는 직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는 것도 쉬어졌다. 조사 대상 기업 중 긴급 지원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2016년 3분의 1에서 절반으로 늘었다.
- 하지만 더 많은 분야에서 발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관리직 제안을 받는 여성은 2018년에는 남성의 79%뿐이었고, 현재는 남성의 81%뿐이다. 흑인 여성은 54%, 라틴계 여성은 65%로, 유색인종 여성은 상황이 더 나쁘다.

## CNNBusiness 기사

**CNNBusiness: Sam's Club will raise pay to catch up with Costco**  
**Sam's Club, 직원의 코스트코 이직 막기 위해 임금 인상**

- 월마트의 멤버십 클럽인 Sam's Club은 직원들이 코스트코로 이직하지 않고 회사에 남게 하기 위해 임금을 시간당 15달러에서 16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속 기간에 따라 3%에서 6%까지 임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 Sam's Club이 성장하기 위해선 일반적인 소매업체보다 더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임금 직원을 꾸준히 고용하고 있다. Sam's Club의 주요 경쟁업체인 코스트코가 시간당 최저 19.5달러 임금을 지급하므로, Sam's Club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한 것이다.
- 최근 몇 년 동안 소매업계 임금은 꾸준히 올랐다. 2020년 4월 평균 시간당 21.18달러에서 8월 24.48달러로 약 16% 인상됐다.

## CNNBusiness 기사



## WSJ: Boeing Freezes Hiring, Delays Pay Raises as Strike Worsens Finances

### 보잉, 파업으로 재정 상태 악화

- 보잉은 금요일 노조 파업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고용을 동결하고 임금 인상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보잉은 이번 파업으로 일주일 만에 5억달러 손실을 본 것으로 예상된다.
- 노조 지도자들은 4년간 40%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태평양 북서부 지역 물가 상승과 10년간 정체된 임금을 고려하면 회사 측 25% 임금 인상 제안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노조 지도자들은 화요일 회사와의 협상 재개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 보잉은 계약직 해고, 기부금과 마케팅 비용 감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요한 건 파업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가이다. 신용평가사 Moody's와 Fitch는 보잉의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junk status)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로 평가하고 있는데, 파업이 1~2주 안에 끝나면 보잉의 신용등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WSJ 기사

#### [보고서]

###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아마존과 AI 칩 생산 계약 구조조정 방안 발표..."파운드리, 자회사로 두고 상장도 검토" 美 국방부로부터 최대 30억 달러 수주...주가 시간외 거래 8%↑

50여 년만의 최대 위기에 빠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부를 분사하기로 했다. 또 유럽과 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인텔은 1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인텔은 우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의 하나로, 반도체 제조(파운드리)와 설계를 분리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